

노동정책연구

2005. 제5권 제4호 pp. 65~99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 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 -

박성재\*

청년실업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대 졸업자의 학교-노동시장 이행문제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한 결과, 지방대 졸업자의 첫 번째 일자리의 질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출신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졸업자일수록 취업사업장의 규모가 작고 본인의 학력과 적성과 맞지 않는 일자리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저급직 종치중도가 높아 지방대 졸업자의 하향취업 정도가 높았으며, 임금수준 역시 최종학교 출신지역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격차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추가로 취업사업장의 위치를 통제한 결과 취업 사업장이 서울지역인 경우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졸자의 임금격차는 성, 학력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도 취업사업장의 특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임금수준은 취업한 사업장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방대생들이 출신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는 노동시장 수요를 넘어서는 고학력자의 과잉공급에서 연유하였기 때문에, 노동시장 수요공급을 감안한 정원정책을 펼쳐야 하며, 지방대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방대가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핵심용어 : 노동이동, 직업지위, 저급직종, 임금수준

투고일: 2005년 10월 6일, 심사의뢰일: 10월 12일, 심사완료일: 11월 28일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 책임연구원(parksj@kli.re.kr).

\*\* 안렌즈곡선 개념 이해에 도움을 준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연구위원과 논문에 대한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I. 문제 제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12.2%까지 치솟았던 청년층 실업률이 이후 빠른 경제 회복에 힘입어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2년 6.6%까지 하락하여 1997년의 5.7%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경기불황으로 다시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해 2005년 10월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7.2%에 이르고 있다. 전체 실업률(3.6%)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는 청년층 유휴화율로 보면 청년실업 정도는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 실업문제는 노동정책의 주요 핵심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놓여있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현장 맞춤형으로 개편하거나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용안정서비스체계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청년층도 학력수준과 취업준비 여부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안주엽 외, 2000; 이병희, 2003; 정인수·김기민, 2004). 특정집단을 세분화할 경우 청년실업대책 수립시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대상별 정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장선에서 지방대생의 취업이라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대 졸업자는 서울 및 수도권 출신 대졸자에 비해 노동시장 이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학 출신자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류장수, 2003, 2005; 김성환·최바울, 2003).

지방대 졸업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시장 성과는 일차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 정책으로 지방대 졸업생이 출신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가 제한되어 있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고등교육 졸업자의 과잉공급으로 대졸자 노동시장에서 학력이 아닌 학벌이 주요한

선별기제로 등장(방하남·김기현, 2001; 장미혜, 2002; 홍영란 외, 2002)한 것도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요인이다.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한 기업의 상시 및 경력직채용 위주의 채용전략 채택(이병희, 2002, 2003; 박우성·노용진, 2001)은 지방대생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일한 인적자원(교육년수)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시장에서의 평가는 동일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대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 개선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지방대 졸업생의 임금수준이 낮다면 지방대 졸업생의 인적자본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대졸자에 비해 체계적으로 낮기 때문인지 아니면 학벌효과 때문인지, 출신지역 차별인지, 지방대 차별인지, 취업한 지역의 효과인지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취업통계자료집』을 보면, 지방대생이 수도권지역 출신자에 비해 취업률은 높지만 대기업 취업비율은 지방대 출신(17.3%)이 수도권 출신(28.9%)보다 낮아 취업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 자체 혹은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간이 짧다고 해서 노동시장 성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일자리가 자신의 학력수준과 전공에 맞는지, 장기적으로 자신의 인적자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면 노동시장 성과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즉,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취업률만이 아닌 일자리의 질에 대한 다양한 지표가 검토되어야 한다. 더구나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적자원 측면에서 본다면 고급인적자원의 보유 및 활용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지방대학의 인적자원 현황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지방대생의 특성에 맞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지역 및 수도권 출신 대졸자들과 비교해, 지방대생들의 취업경로와 일자리 수준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지방대생에 특화된 실업대

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교육과 노동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3년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자료(이하 졸업자조사)」를 이용해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실증 분석토록 한다.

## II. 지방대학의 위기와 고학력자들의 노동이동

### 1. 과잉교육과 지방대학의 위기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1.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1970년의 26.9%와 비교해보면 지난 30여년 동안 대학진학률이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고등교육의 확대는 고급 숙련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을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수요를 넘어서는 과도한 교육투자는 하향취업과 교육수익률 감소 그리고 대학간 위계서열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1980년대 대학진학률의 급증으로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교육수익률이 빠르게 감소하였으며(안주엽 외, 2002; 최강식·정진호, 2005), 고등교육 졸업자간 경쟁격화로 하향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전체 고등교육 졸업자들 중 하향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35%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어수봉, 1994; 김기현, 2003). 특히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고졸 일자리를 대체하는 crowding-out effect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병유·이상일, 2002).

고학력화는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교육수준이 아닌 학벌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이제 더 이상 고등교육으로의 진입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으며 진입한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차이, 즉 대학간 위계서열이 중요해졌다(방하남·김기현, 2001; 장미혜, 2002)<sup>1)</sup>. 2년제 대학인지 4년제 대학인지 그리고 동

1) 대학의 서열화는 1981년부터 졸업정원제가 실시된 후, 대학 본고사가 폐지되고 대입 학력

일한 대졸자일지라도 명문대와 비명문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자간에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김성환·최바울, 2003; 류장수, 2003).

고학력화에 따른 기업의 채용전략 변화는 지방대(특히 지방 전문대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입학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 ‘학력’이 아닌 ‘학벌’이 주요한 선별기제로 작동함에 따라 입학지원자들의 지방대 기피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학력의 변별기능이 취약해지자 기업들이 학벌을 고용전략의 하나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어수봉, 1994; 홍영란, 2002). 이 결과 이미 지방대학에서는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충원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 1>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지역별 미충원율 추이로,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지역 사립대학은 미충원율이 2.10%에 불과하지만 사립대 지방대학은 15.50%에 이르고 있다. 지방전문대는 그 비율이 27.95%에 이르러 전문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교육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지방대학에 미친 영향은 지역별 미충원율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4년제 대학의

<표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미충원율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4년제	국립	수도권	1.56	0.08	3.42	2.26	3.16
		지방	2.57	2.57	5.77	5.86	5.71
	사립	수도권	1.17	1.50	2.30	2.45	2.10
		지방	4.69	3.28	9.33	18.14	18.50
전문대학	수도권		0.01	0.01	0.03	1.34	1.96
	지방		6.61	2.37	11.80	26.26	27.95
	국립		4.56	0.98	6.17	9.09	12.18
	사립		4.40	1.60	7.87	17.98	19.00

자료: 이주호 의원실, 「시도별 대학 미충원율 분석」 보도자료, 2004. 9. 19. 류장수 (2005)에서 재인용.

고사라는 단수 시험체제로 대체되면서 본격화되었다(홍영란 외, 2002).

2005년도 미충원율을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에는 전남(19.3%)과 제주(6.0%)를 제외하고 여타 지역은 미충원율이 5% 미만에 그쳤으나, 2005년에는 울산과 대구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미충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전남은 미충원율이 33.3%에 이르고 전북(21.3%), 광주(20.1%), 제주(19.0%)도 20% 내외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대학의 정원 미달사태가 지방 광역시 소재 대학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고등교육 입학자원의 지방대 기피로 미충원율이 증가할 경우 지방대의 교육 투자를 감소시킬 것이고 이는 서울지역 대학과의 격차 확대로 이어져 결국 지방대졸업생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을 보면 수도권대학은 8,312천원에 이르지만, 지방 도시권대학은 6,575천원, 지방 비도시권 대학은 1,737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

2)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사태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원 및 설립자유화정책의 결과이다. 설훈의 원실 보도자료(2003. 9)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총 71,458명 늘어났는데, 이 중 지방사립대 정원이 51,121명 증가해 전체 증원인원의 71.5%에 이른다. 입학정원이 늘어난 해에 지방대의 충원율이 그만큼 낮아졌으며, 증원이 크게 증가한 대학은 충원율도 낮았다. 한편, 2004년에는 대학 및 대학원 입학정원이 사상 최초로 전년 대비 3,361명이 감축되기도 하였는데(교육인적자원부, 「2004학년도 전국대학 및 대학원생 학생정원 감축」 관련 보도자료, 2004. 2. 21), 향후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할 경우 지방 소재 전문대 → 도 소재 지방사립대 → 광역시 소재 지방사립대 순으로 엄청난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이다.

<표> 입학정원 증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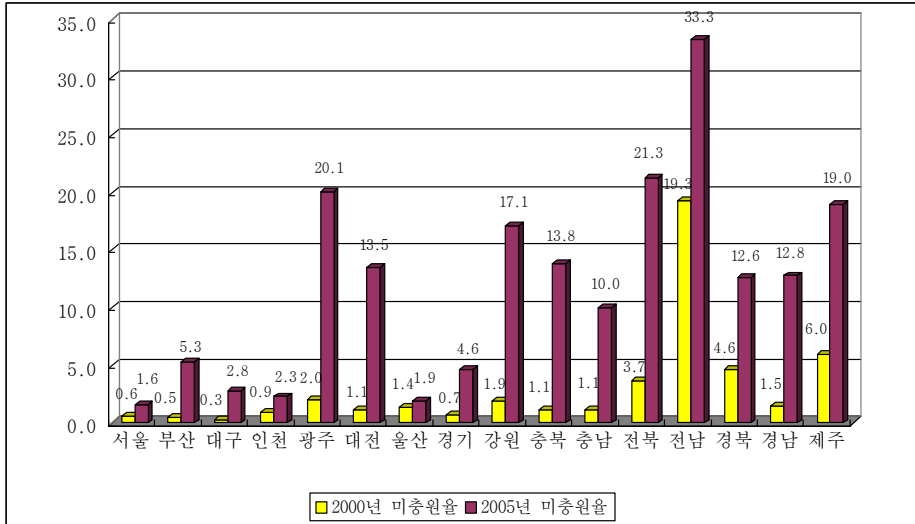
(단위: 명, %)

	국공립대		수도권사립대		지방사립대		전 체	
	입학정원	증원율	입학정원	증원율	입학정원	증원율	입학정원	증원율
1996	73,730	-	95,925	-	121,120	-	290,775	-
1997	77,435	5.03	98,175	2.35	134,470	11.02	310,080	6.64
1998	78,945	1.95	106,775	8.76	150,135	11.65	335,855	8.31
1999	80,635	2.14	107,715	0.88	153,905	2.51	342,255	1.91
2000	80,584	-0.06	107,631	-0.08	159,848	3.86	348,063	1.70
2001	80,952	0.46	107,085	-0.51	162,163	1.45	350,200	0.61
2002	82,008	1.30	108,171	1.01	168,575	3.95	358,754	2.44
2003	81,691	-0.39	108,301	0.12	172,241	2.17	362,233	0.97
1996-03년간 증원인원	7,961 (11.1)		12,376 (17.3)		51,121 (71.5)		71,458 (100.0)	

자료: 설훈 의원실, 「무분별한 정원 증원으로 지방대 위기 자초」 보도자료, 2003. 9. 3.

〔그림 1〕 지역별 4년제 일반대학의 2000년과 2005년 미충원율 비교

(단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3.11), 「지방대의 현실과 전망」; 교육인적자원부(2005.5), 「2006 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정원 책정기준 및 조정계획(안)」.

육개발원, 2003. 11). 수도권지역 대학의 1인당 교육비와 비교하면 지방대학의 1인당 교육비는 각각 79.1%, 20.9%에 불과한 수준이다.

## 2. 지방대 졸업생들의 노동이동

우리나라는 인구규모에 비해 국토가 작아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960년대 본격화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은 서울과 지방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기업, 첨단IT기업, 외국인투자기업처럼 성장 잠재력이 높고 고용에 과급효과가 큰 업종일수록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sup>3)</sup>. 「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3년)」에 따르면 전 사업체의 46.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좋은(decent)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300인 이상 회사법인의 수도권 집중도는 무려 61.03%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3) 삼성경제연구원(2005)에 따르면 일반제조업 사업체나 종사자의 수도권 비중은 50%대인데 반해 벤처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상위 1,000대 기업의 비중은 70%를 넘어서고 있다.

발전은 지방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고4), 지방은 소득감소 및 실업증가라는 위기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지방대생은 서울이나 수도권출신 대졸자에 비해 해당 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기회가 낮고 제시되는 일자리의 질 역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최종학교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다. <표 2>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0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자료』<sup>5)</sup>을 이용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최종학교 소재지와 취업 사업장의 소재지를 비교해 이들의 노동이동을 살

<표 2> 고등교육 졸업자의 노동이동

(단위: 명, %)

		서울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기타	총계
전 문 대	배출인원(A)	9,692	46,163	56,661	21,467	18,644	8,279	160,906
	잔류인원(B)	8,231	21,939	50,021	16,752	11,539	5,547	114,029
	현인원(C)	42,514	30,405	51,100	16,972	13,452	6,463	160,906
	유출인원(D=A-B)	1,461	24,224	6,640	4,715	7,105	2,732	46,877
	유입인원(E=C-B)	34,283	8,466	1,079	220	1,913	916	46,877
	잔존률(=B/A)*100	84.9	47.5	88.3	78.0	61.9	67.0	70.9
	유입률(=E/A)*100	353.7	18.3	1.9	1.0	10.3	11.1	29.1
	유출률(=D/A)*100	15.1	52.5	11.7	22.0	38.1	33.0	29.1
	유입인원비율(=E/C)*100	80.6	27.8	2.1	1.3	14.2	14.2	29.1
대 학	배출인원(A)	34,663	18,558	36,196	13,447	23,358	5,977	132,199
	잔류인원(B)	26,341	7,271	28,678	8,001	8,716	2,608	81,615
	현인원(C)	54,247	22,075	31,614	8,972	10,738	4,553	132,199
	유출인원(D=A-B)	8,322	11,287	7,518	5,446	14,642	3,369	50,584
	유입인원(E=C-B)	27,906	14,804	2,936	971	2,022	1,945	50,584
	잔존률(=B/A)*100	76.0	39.2	79.2	59.5	37.3	43.6	61.7
	유입률(=E/A)*100	80.5	79.8	8.1	7.2	8.7	32.5	38.3
	유출률(=D/A)*100	24.0	60.8	20.8	40.5	62.7	56.4	38.3
	유입인원비율(=E/C)*100	51.4	67.1	9.3	10.8	18.8	42.7	38.3

주: 기타는 강원도, 제주도 및 외국인임.

자료: 교육개발원, 『200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자료집(2004)』를 이용해 계산함.

- 4) 비수도권 지역 우수 인적자원들은 모두 3차에 걸쳐 수도권으로 유출되는데, 1차로 지방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2차로 지방소재 대학 재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편입학하며, 3차로 지방소재 대학을 졸업한 후 수도권 직장으로 유출되고 있다 (류장수, 2005).
- 5) 교육개발원의 졸업자 취업통계자료집은 2003년 8월 후기와 2004년 2월에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자들을 대상으로 2004년 4월 시점에서 조사된 취업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펴본 것이다. 2003~2004년 2년 동안 전문대를 졸업해 취업한 16만여명 중 29.1%가 최종학교 출신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자는 그 비율이 훨씬 높은 38.3%에 이르고 있다<sup>6)</sup>. 이는 대졸자 노동시장이 전문대 노동시장에 비해 보다 넓음을 반영한다.

〈표 3〉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률

(단위: 명, %)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미취업 및 미상	취업률	
전 체	전 체	493,944	293,105 (59.3)	44,698 ( 9.0)	6,180 (1.3)	149,961 (30.4)	66.2
	서 울	87,721	44,355 (50.6)	12,194 (13.9)	984 (1.1)	30,188 (34.4)	59.5
	수도권	105,524	64,721 (61.3)	8,187 ( 7.8)	1,454 (1.4)	31,162 (29.5)	67.5
	지 방	300,699	184,029 (61.2)	24,317 ( 8.1)	3,742 (1.2)	88,611 (29.5)	67.5
	영 남	142,960	92,857 (65.0)	10,706 ( 7.5)	1,224 (0.9)	38,173 (26.7)	70.9
	호 남	62,057	34,914 (56.3)	4,284 ( 6.9)	1,039 (1.7)	21,820 (35.2)	61.5
	충 청	70,142	42,002 (59.9)	7,247 (10.3)	978 (1.4)	19,915 (28.4)	67.8
	기 타	25,540	14,256 (55.8)	2,080 ( 8.1)	501 (2.0)	8,703 (34.1)	62.1
	총 계	226,886	160,906 (70.9)	15,037 ( 6.6)	3,338 (1.5)	47,605 (21.0)	77.2
전 문 대	서 울	16,349	9,692 (59.3)	1,459 ( 8.9)	190 (1.2)	5,008 (30.6)	65.9
	수도권	69,228	46,163 (66.7)	3,215 ( 4.6)	1,111 (1.6)	18,739 (27.1)	71.1
	지 방	141,309	105,051 (74.3)	10,363 ( 7.3)	2,037 (1.4)	23,858 (16.9)	81.5
	영 남	73,112	56,661 (77.5)	4,665 ( 6.4)	687 (0.9)	11,099 (15.2)	83.6
	호 남	29,869	21,467 (71.9)	1,652 ( 5.5)	572 (1.9)	6,178 (20.7)	77.7
	충 청	26,299	18,644 (70.9)	3,254 (12.4)	529 (2.0)	3,872 (14.7)	82.8
	기 타	12,029	8,279 (68.8)	792 ( 6.6)	249 (2.1)	2,709 (22.5)	75.3
	총 계	267,058	132,199 (49.5)	29,661 (11.1)	2,842 (1.1)	102,356 (38.3)	56.4
	서 울	71,372	34,663 (48.6)	10,735 (15.0)	794 (1.1)	25,180 (35.3)	57.9
수도권	36,296	18,558 (51.1)	4,972 (13.7)	343 (0.9)	12,423 (34.2)	59.9	
대 학	지 방	159,390	78,978 (49.6)	13,954 ( 8.8)	1,705 (1.1)	64,753 (40.6)	54.9
	영 남	69,848	36,196 (51.8)	6,041 ( 8.6)	537 (0.8)	27,074 (38.8)	57.2
	호 남	32,188	13,447 (41.8)	2,632 ( 8.2)	467 (1.5)	15,642 (48.6)	46.2
	충 청	43,843	23,358 (53.3)	3,993 ( 9.1)	449 (1.0)	16,043 (36.6)	59.3
	기 타	13,511	5,977 (44.2)	1,288 ( 9.5)	252 (1.9)	5,994 (44.4)	49.9

주: 1) 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졸업자} - (\text{진학자} + \text{입대자})} * 100$

2) 기타는 강원, 제주 및 외국임.

자료: 교육개발원, 『200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자료집(2004)』를 이용해 계산함.

6) 최종학교 소재지와 취업 사업장간 소재지만 비교해 노동이동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출신자가 지방대학으로 진학하였다가 졸업 후 다시 가족이 있는 서울에서 취업한 경우 이를 지역 간 노동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대졸자들을 보면 서울과 영남은 출신대학 소재지에서 일자리를 구한 비중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산업발달이 소외되어 왔던 충청, 호남 등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노동이동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졸업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만든 지역별 잔존율을 보면 영남과 서울지역의 잔존율이 높고 수도권은 과반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노동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해당 지역에서 배출한 인원보다 타 지역에서 유입된 지방대생들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영호남과 충청지역은 타 지역 졸업자가 해당 지역으로 유입하는 비율은 8%내외에 그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노동이동 유형은 지방대생들의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집중이라는 한 방향(one-side)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수도권은 노동유입과 유출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률은 66.2%로 집계되었다. 서울지역(59.5%)에 비해 지방지역 출신자(67.5%)의 취업률이 더 높으며, 지역별로도 큰 편차가 있다. 학력별로 구분해 보면 전문대졸업자는 지방 출신(81.5%)이 서울지역 출신자(65.9%)에 비해 15.6%p 높으며, 지역별로는 영남지역의 취업률이 높다. 대졸자의 경우 수도권 출신자(59.9%)의 취업률이 가장 높다. 출신지역별로 비교해보

〈표 4〉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사업장 규모

(단위: 명, %)

	전문대			대 학		
	취업자	대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대기업(%)	중소기업(%)
서울	9,692	2,337 (24.1)	7,355 (75.9)	34,663	16,672 (48.1)	17,991 (51.9)
수도권	46,163	7,761 (16.8)	38,402 (83.2)	18,558	4,777 (25.7)	13,781 (74.3)
지방	105,051	15,096 (14.4)	89,955 (85.6)	78,978	16,681 (21.1)	62,297 (78.9)
영 남	56,661	8,145 (14.4)	48,516 (85.6)	36,196	8,406 (23.2)	27,790 (76.8)
호 남	21,467	2,899 (13.5)	18,568 (86.5)	13,447	2,804 (20.9)	10,643 (79.1)
충 청	18,644	2,714 (14.6)	15,930 (85.4)	23,358	4,161 (17.8)	19,197 (82.2)
기 타	8,279	1,338 (16.2)	6,941 (83.8)	5,977	1,310 (21.9)	4,667 (78.1)
전 체	160,906	25,194 (15.7)	135,712 (84.3)	132,199	38,130 (28.8)	94,069 (71.2)

주: 1) 기타는 강원, 제주 및 외국인임.

2)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분류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1호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기준에 따른 것임.

자료: 교육개발원, 『200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자료집(2004)』를 이용해 계산함.

면 서울지역 대학출신자(57.9%)와 지방대학 출신자(54.9%)간 취업률 격차가 3%p에 불과하지만 지방간 격차는 큰 편이다.

한편 취업자의 취업사업장 크기를 비교해보면 전문대졸업자는 15.7%가 대기업에 취업한 반면 대학 졸업자는 28.8%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문대생의 경우 서울과 울산지역 졸업자가 대기업에 취업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학 졸업자는 서울과 인천지역 출신자의 40%이상이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북, 경남·북, 충남·북은 그 비율이 20%내외에 그쳐 역시 지역 간 격차가 비교적 큰 편이다.

### Ⅲ. 표본의 첫 일자리 특성

#### 1. 분석자료 및 표본의 주요 특성

이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졸업자조사이다. 졸업자 조사는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이행패턴 및 교육시장과 노동시장간 상호작용에 대한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로, 2002년 2월 국내의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14,026명(4년제 대학 졸업생 7,543명, 전문대 졸업생 6,483명)을 대상으로 2003년 12월 시점에서의 경제활동상태 및 노동이동을 추적 조사한 것이다.<sup>7)</sup>

표본선정과정을 거쳐 이 연구에 사용한 표본은 총 10,984명이다. 이 글이 지방대 졸업자의 노동이동 유형 및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는 데 있으므로 먼저 졸업 후 추가로 정규교육과정을 다니는 재학생과 개인의 인적사항 및 학교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분석에 필요한 주요 변수가 빠진 사례를 제외하였다. 또한 첫 직장을 입사한 시점이 졸업 1년 이전인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들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로서 계속교육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7) 졸업생조사가 모집인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교육개발원의 『2004 졸업자 취업통계자료집』 정보를 제시한다. 교육개발원의 자료집에 따르

표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통계는 아래의 <표 5>~<표 6>과 같다. 전체 10,984명의 표본 중 서울 및 수도권지역 졸업자가 5,147명(46.9%)이며 지방대학 졸업생은 5,837명(53.1%)이다. 지방 중에는 영남권 출신(22.7%)비중이 가장 높고, 호남(19.4%), 충청(7.5%)이 뒤를 따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46.7%)에 비해 여성(53.3%)의 비율이 다소 높고, 학력별로는 전문대가 46.7%, 대학이 53.3%이고, 수도권은 전문대(75.6%)가 대학(24.4%)에 비해 비율이 다소 높다.

<표 5>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성		학 력		전 공				전 체
	남자	여자	전문대	대학	인문사회	자연공학	교육의학	기타	
서울	51.2	48.8	31.7	68.3	39.4	42.8	8.5	9.2	3,205(100)[ 29.2]
수도권	45.8	54.2	75.6	24.4	27.5	50.9	14.2	7.3	1,942(100)[ 17.7]
지방	44.6	55.4	45.2	54.8	30.5	47.3	14.1	8.2	5,837(100)[ 53.1]
영남	43.8	56.2	51.9	48.1	29.7	51.6	10.4	8.3	2,493(100)[ 22.7]
호남	44.5	55.5	40.3	59.7	32.9	43.5	15.4	8.3	2,130(100)[ 19.4]
충청	42.6	57.4	45.4	54.6	24.9	44.2	21.2	9.7	826(100)[ 7.5]
기타	54.1	45.9	29.1	70.9	34.0	46.9	15.2	3.9	388(100)[ 2.1]
소 계	46.7	53.3	46.7	53.3	32.6	46.6	12.5	8.3	10,984(100)[100.0]

주: 기타는 강원도와 제주도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면 2003년 8월 후기와 2004년 2월에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자는 모두 293,105명이며, 학력수준별 성 및 최종학교 출신지역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고학력자의 학력수준별 성 및 출신지역 분포>

(단위: %, 명)

	전문대			대학		
	남자	여자	전 체	남자	여자	전 체
서울	34.2	65.8	9,692 [ 6.0]	51.5	48.5	34,663 [ 26.2]
수도권	46.3	53.7	46,163 [ 28.7]	57.0	43.0	18,558 [ 14.0]
지방	47.7	52.3	105,051 [ 65.2]	51.3	48.7	78,978 [ 59.8]
영남	48.1	51.9	56,661 [ 35.2]	50.9	49.1	36,196 [ 27.4]
호남	50.5	49.5	21,467 [ 13.3]	53.9	46.1	13,447 [ 10.2]
충청	44.3	55.7	18,644 [ 11.6]	50.4	49.6	23,358 [ 17.7]
기타	44.9	55.1	8,279 [ 5.1]	51.7	48.3	5,977 [ 4.5]
전 체	46.5	53.5	160,906 [100.0]	52.2	47.8	132,199 [100.0]

〈표 6〉 표본의 첫 직장 경험유무 및 현재 취업여부

(단위: 명, %)

	현재 취업자		현재 미취업자		전체
	첫 직장 경험유	첫 직장 경험무	첫 직장 경험유	첫 직장 경험무	
서울	721(22.5)	1,930(60.2)	257( 8.0)	297( 9.3)	3,205
수도권	616(31.7)	992(51.1)	238(12.3)	96( 4.9)	1,942
지방	1,585(27.2)	3,074(52.7)	702(12.0)	476( 8.2)	5,837
영남	703(28.2)	1,276(51.2)	317(12.7)	197( 7.9)	2,493
호남	585(27.5)	1,155(54.2)	242(11.4)	148( 6.9)	2,130
충청	223(27.0)	420(50.8)	104(12.6)	79( 9.6)	826
기타	74(19.1)	223(57.5)	39(10.1)	52(13.4)	388
소계	2,922(26.6)	5,996(54.6)	1,197(10.9)	869( 7.9)	10,984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전공계열 분포를 보면 인문사회계열 32.6%, 이공자연계열 46.9%, 교육의학계열 12.8%, 기타 8.3% 순이다.

표본의 조사시점 당시 취업여부와 첫 직장 경험여부를 보면 총 4,119명(37.5%)이 첫 직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자(8,918명)중 현 직장이 첫 직장인 1,930명(54.6%)은 첫 직장이 현 직장인 경우이다. 반면 869명(7.9%)은 조사 시점까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표본의 92.1%인 10,115명이 조사시점까지 첫 직장을 경험하였거나 현재 첫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셈이다.

## 2. 지방대 졸업자들의 노동이동

고학력자의 최종학교 졸업 후 노동이동을 확인해보기에 앞서 먼저 지방 출신자들의 교육이동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전문대졸업자의 경우 고교 출신지역에 소재한 전문대학을 진학한 자가 3,349명(65.6%)이고 다른 지역에 소재한 전문대학을 진학한 비율이 34.4%에 이른다. 그러나 대학졸업자는 고교 출신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자(3,210명)가 45.5%에 이르고 있다. 전문대졸업자는 고교와 인접한 지역의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대학 졸업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비율이 20%내외에 이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고교를 마치고 호남지역에 위치한 대

〈표 7〉 고등학교 출신지역별 대학진학상황

(단위: 명, %)

고교출신지역 대학출신지역		서울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기타	전체
		전문대	서울	60.2	17.7	5.6	2.1	5.0
	수도권	34.4	73.2	6.2	23.0	4.3	7.0	1,465( 28.7)
	영남	3.2	2.4	73.9	14.6	2.9	2.8	1,293( 25.3)
	호남	1.5	5.4	2.9	59.9	44.2	8.5	853( 16.7)
	충청	0.7	0.9	11.3	0.2	43.5	2.1	371( 7.3)
	기타	0.1	0.5	0.1	0.1	0.2	71.8	111( 2.2)
	소계	1,170	1,006	1,466	903	421	142	5,108(100.0)
대학	서울	69.8	29.8	21.7	19.2	23.8	21.0	2,176( 37.3)
	수도권	14.9	12.6	2.7	1.9	2.9	2.9	471( 8.1)
	영남	6.6	4.2	64.6	12.6	6.4	6.6	1,195( 20.5)
	호남	2.4	45.7	6.5	61.8	14.1	4.4	1,270( 21.8)
	충청	3.1	5.3	3.3	3.9	51.8	2.9	450( 7.7)
	기타	3.2	2.2	1.2	0.5	1.0	62.1	275( 4.7)
	소계	1,741	1,069	1,346	926	483	272	5,837(100.0)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다소 높으며, 고교졸업 후 대학진학시 지역간 교육이동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한 노동이동을 살펴보면(표 8 참조), 앞에서 제시한 <표 2>에 비해 노동이동율이 7~10%p 가량 높았다<sup>8)</sup>. 학력별 노동이동율을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교 출신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한 잔존율은 62.8%인데, 서울과 영남 출신의 잔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한 노동유출률은 37.2%인데, 수도권이 52.5%로 가장 많은 인력유출을 겪었고 충청과 호남지역도 유출률이 40%를 넘어서고 있다. 대졸자의 노동이동률은 47.8%로 전문대졸업자에 비해 10%p 가량 높다. 전문대졸업자와 마찬가지로 잔존율은 서울과 영남지역에서 높고, 수도권, 호남, 충청지역은 유출률이 60%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은 잔존율(30.6%)에 비해 유출률(69.4%)이 훨씬 높지만,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에 힘입

8) 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자료집은 졸업 후 1년이 못된 시점에 조사한 결과이지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졸업자조사는 졸업 후 약 2년의 기간이 흐른 후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이동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표본의 최종학교 졸업 후 노동이동 추이<sup>9)</sup>

(단위: 명, %)

		서울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기타	총계
전 문 대	배출인원	850	1,193	1,022	687	293	87	4,132
	잔류인원	655	567	748	398	152	74	2,594
	현인원	1,298	843	974	641	283	93	4,132
	유출인원	195	626	274	289	141	13	1,538
	유입인원	643	276	226	243	131	19	1,538
	잔존률	77.1	47.5	73.2	57.9	51.9	85.1	62.8
	유입률	75.6	23.1	22.1	35.4	44.7	21.8	37.2
	유출률	22.9	52.5	26.8	42.1	48.1	14.9	37.2
	유입인원비율	49.5	32.7	23.2	37.9	46.3	20.4	37.2
대 학	배출인원	1,769	389	936	1,032	341	207	4,674
	잔류인원	1,236	119	488	391	130	78	2,442
	현인원	2,043	979	714	550	253	135	4,674
	유출인원	533	270	448	641	211	129	2,232
	유입인원	807	860	226	159	123	57	2,232
	잔존률	69.9	30.6	52.1	37.9	38.1	37.7	52.2
	유입률	45.6	221.1	24.1	15.4	36.1	27.5	47.8
	유출률	30.1	69.4	47.9	62.1	61.9	62.3	47.8
	유입인원비율	39.5	87.8	31.7	28.9	48.6	42.2	47.8

주: 표본의 최종학교 출신지역과 현재 취업한 사업장의 지역간 비교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어 유입률이 221.1%에 이르고 있다.

### 3. 지방대 졸업자의 첫 번째 일자리의 특성

일자리의 사업장규모, 종사상지위 및 임금수준 등을 이용해 지방대졸업생과 서울 및 수도권지역 졸업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방대 졸업생의 첫 직장 사업체규모를 비교해보면 수도권지역 졸업생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서울지역 졸업생에 비해서는 사업체규모가 작은 편이다(표 9 참조). 서울지역 졸업생 중 3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비중은 32.4%에 이르고 있지만, 지방대 출신은 21.9%에 그치고 있다.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9)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종학교와 첫 직장간 지역이동 여부를 비교해야 하나 졸업자조사 설문지가 현 직장에 대해서만 사업장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재직하고 있는 지방대 졸업자는 45.9%로 거의 과반에 가깝고, 서울지역 졸업자는 36.9%만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졸업여부와 첫 직장 사업체 규모간 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

〈표 9〉 첫 직장 사업체규모

(단위: 명, %)

		1~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검정통계량
서울		1,066 (36.9)	535 (18.5)	352 (12.2)	935 (32.4)	2,888	$\chi^2=165.74$ sig=0.000
수도권		913 (49.8)	369 (20.1)	180 ( 9.8)	373 (20.3)	1,835	
지방		2,444 (45.9)	1,140 (21.4)	573 (10.8)	1,165 (21.9)	5,322	
전체		4,423 (44.0)	2,044 (20.3)	1,105 (11.0)	2,473 (24.6)	10,045	
전문대	서울	473 (49.7)	173 (18.2)	119 (12.5)	187 (19.6)	952	$\chi^2=8.97$ sig=0.175
	수도권	731 (52.6)	270 (19.4)	130 ( 9.4)	258 (18.6)	1,389	
	지방	1,317 (53.3)	460 (18.6)	249 (10.1)	446 (18.0)	2,472	
	소계	2,521 (52.4)	903 (18.8)	498 (10.3)	891 (18.5)	4,813	
대학	서울	593 (30.6)	362 (18.7)	233 (12.0)	748 (38.6)	1,936	$\chi^2=114.22$ sig=0.000
	수도권	182 (40.8)	99 (22.2)	50 (11.2)	115 (25.8)	446	
	지방	1,127 (39.5)	680 (23.9)	324 (11.4)	719 (25.2)	2,850	
	소계	1,902 (36.4)	1,141 (21.8)	607 (11.6)	1,582 (30.2)	5,232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표 10〉 첫 직장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임시일용	전체	검정통계량
서울		30 (1.0)	40 (1.4)	1 (0.0)	2,559 (88.0)	278 ( 9.6)	2,908	$\chi^2=47.10$ sig=0.000
수도권		11 (0.6)	21 (1.1)	3 (0.2)	1,569 (85.0)	242 (13.1)	1,846	
지방		43 (0.8)	74 (1.4)	15 (0.3)	4,467 (83.3)	763 (14.2)	5,362	
전체		84 (0.8)	135 (1.3)	19 (0.2)	8,595 (85.0)	1,283 (12.7)	10,116	
전문대	서울	6 (0.6)	12 (1.2)	0 (0.0)	844 (87.7)	100 (10.4)	962	$\chi^2=18.36$ sig=0.019
	수도권	8 (0.6)	13 (0.9)	3 (0.2)	1,177 (84.2)	197 (14.1)	1,398	
	지방	12 (0.5)	29 (1.2)	9 (0.4)	2,066 (82.8)	380 (15.2)	2,496	
	소계	26 (0.5)	54 (1.1)	12 (0.2)	4,087 (84.2)	677 (13.9)	4,856	
대학	서울	24 (1.2)	28 (1.4)	1 (0.1)	1,715 (88.1)	178 ( 9.1)	1,946	$\chi^2=25.78$ sig=0.001
	수도권	3 (0.7)	8 (1.8)	0 (0.0)	392 (87.5)	45 (10.0)	448	
	지방	31 (1.1)	45 (1.6)	6 (0.2)	2,401 (83.8)	383 (13.4)	2,866	
	소계	58 (1.1)	81 (1.5)	7 (0.1)	4,508 (85.7)	606 (11.5)	5,260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과 사업장규모간 관계는 학력별로 상이한 유형이다. 전문대는 지방대 졸업여부와 사업체규모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대졸자는 서울 출신일수록 첫 직장 규모가 큰 사업체일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첫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아 대부분의 대졸자(97.7%)들은 임금근로자로 첫 번째 일자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졸업자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대졸자에 비해 임시·일용직인 비율이 다소 높다. 지방대 졸업생과 서울 및 수도권지역 졸업생간 첫 직장의 종사상지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문대는 5%유의수준에서, 대학은 1% 유의수준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졸자의 전공과 첫 직장 직무의 일치정도를 비교해보면 31.7%의 대졸자가 자신의 전공과 첫 직장의 직무가 별로 관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서울지역 대졸자는 전공과 밀접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68.2%에 이르지만, 지방대 졸업자는 66.1%로 지방대 졸업자의 직무일치정도가 다소 낮았다. 학력별로 비교해보면 대졸자에 비해 전문대졸업자의 직무일치정도가 낮았으며, 각 교육수준에서도 지방대졸업자일수록 전공과 밀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낮

〈표 11〉 전공과 직무 간 일치정도

(단위: 명, %)

		전혀 관계없음	별로 관계없음	다소 밀접함	매우 밀접함	전체	검정통계량
서울		507 (17.4)	417 (14.3)	957 (32.9)	1,027 (35.3)	2,908	$\chi^2=64.01$ sig=0.000
수도권		396 (21.5)	217 (11.8)	486 (26.3)	747 (40.5)	1,846	
지방		1,168 (21.8)	653 (12.2)	1,447 (27.0)	2,094 (39.1)	5,362	
전체		2,071 (20.5)	1,287 (12.7)	2,890 (28.6)	3,868 (38.2)	10,116	
전문대	서울	197 (20.5)	148 (15.4)	290 (30.1)	327 (34.0)	962	$\chi^2=31.75$ sig=0.000
	수도권	296 (21.2)	167 (11.9)	354 (25.3)	581 (41.6)	1,398	
	지방	628 (25.2)	308 (12.3)	637 (25.5)	923 (37.0)	2,496	
	소계	1,121 (23.1)	623 (12.8)	1,281 (26.4)	1,831 (37.7)	4,856	
대학	서울	310 (15.9)	269 (13.8)	667 (34.3)	700 (36.0)	1,946	$\chi^2=35.52$ sig=0.000
	수도권	100 (22.3)	50 (11.2)	132 (29.5)	166 (37.1)	448	
	지방	540 (18.8)	345 (12.0)	810 (28.3)	1,171 (40.9)	2,866	
	소계	950 (18.1)	664 (12.6)	1,609 (30.6)	2,037 (38.7)	5,260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표 12〉 학력수준별 월평균임금

(단위: 명, 만원)

	전문대			대학			전체		
	표본수	월평균임금		표본수	월평균임금		표본수	월평균임금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울	944	125.2	40.6	1,893	175.3	55.1	2,837	158.6	56.0
수도권	1,374	118.8	42.1	437	153.9	41.9	1,811	127.3	44.6
지방	2,446	111.1	40.1	2,784	150.8	50.6	5,230	132.2	50.1
영남	1,206	112.8	42.0	1,051	152.2	53.0	2,257	131.1	51.3
호남	799	110.6	35.2	1,120	149.9	47.8	1,919	133.5	47.2
충청	341	111.0	45.9	382	149.5	54.0	723	131.3	53.9
기타	100	95.8	28.3	231	150.8	46.6	331	134.2	48.9
전체	4,764	116.1	41.2	5,114	160.1	53.0	9,878	138.9	52.5

주: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만 포함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음은 1% 유의수준에서 확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만 대상으로 임금수준<sup>10)</sup>을 비교해 보면 전체 표본의 월 평균임금은 138.9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출신자의 월평균임금은 158.6만원인데 반해 지방대 졸업자는 132.2만원에 그쳐 임금격차가 큰 편이다. 학력수준별로 보면 전문대졸업자는 지방대 출신자의 월평균임금(111.1만원)은 서울지역 출신자(125.2만원)의 88.8%수준이고, 대졸자의 경우 지방대졸업자의 월평균임금(150.8만원)은 서울지역 졸업자(175.3만원)의 8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 IV. 지방대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노동시장 성과는 일반적으로 취업여부 혹은 임금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10) 서울지역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취업 사업장의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임금을 표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졸업자조사는 첫 직장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지방대 졸업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되었다.

하지만 하나의 지표만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가 보조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평가한다면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기까지 걸린 이행기간, 취업사업장의 지급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취업사업장의 규모, 일자리의 임금수준, 일자리의 직업적 지위, 고용의 안정성(종사상지위) 및 직무일치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 집중해 노동시장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취업한 일자리의 직업지위를 이용해 지방대 졸업생이 서울지역 졸업생에 비해 직업지위가 낮은 일자리로 진입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산업, 직업 및 사업장규모 기준별 임금을 이용해 만든 직종순위개념을 이용해 지방대 졸업생일수록 저급직종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수준은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 변수이기 때문에 지방대 졸업생의 임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방대졸업자와 비 지방대 졸업자간 노동시장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지방대 졸업자의 임금수준이 낮다면 이것이 취업 사업장의 위치인지, 출신지역 차별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 1. 직업지위

직업은 물질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계층구조의 가장 강력한 지표이다(Blau & Duncan, 1967; Powers, 1982; 차종천, 1998).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층 및 계급구조에 대한 경험적 연구 대부분이 직업분류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특정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수준이 있고 직업위계에 따라 상이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수입(경제적 지위)과 교육(사회적 지위)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이용할 경우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일자리의 직업지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홍두승(1983)의 사회경제적 지위척도와 트라이만(Treiman, 1977)의 국제직업위세척도, 간즈붐 등(Ganzeboom et al., 1989)의 사회경제적 지위척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지위가 일자리의 질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간주하고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처

음으로 갖는 일자리의 직업지위에 출신 지역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 간즈봄의 척도를 이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자리의 직업위 세점수는 표준직업분류 소분류별로 간즈봄 등의 직업위세점수를 대입하여 구 하였다.11)

분석에 앞서 학력수준과 출신지역별로 직업지위점수를 비교해보면 학력수준 이 높을수록 직업지위가 높고, 전문대졸업자는 서울 및 수도권출신자가, 대졸 자는 지방출신자(55.2)가 서울출신자(53.3)에 비해 직업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4>는 첫 번째 일자리별로 직업위세점수를 구한 후 이를 종속변수로 하 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남성일수록 직업지위가 낮은 것은 동일한 교 육수준일지라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무직종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높아 교육

<표 13> 학력수준별 출신지역별 직업지위

	전문대			대학			전체		
	표본수	직업지위		표본수	직업지위		표본수	직업지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서 울	942	48.787	11.369	1,872	53.296	14.749	2,814	51.786	13.873
수도권	1,372	48.926	11.240	433	53.270	14.543	1,805	49.968	12.252
지 방	2,445	47.114	12.221	2,759	55.234	14.626	5,204	51.419	14.141
전 체	4,759	47.967	11.809	5,064	54.350	14.694	9,823	51.258	13.748

주: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만 포함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11) 직업구조 및 노동시장 특성의 영향으로 직업개념 및 분류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에 외국의 직업분류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국표준직업분류는 ISCO-88을 거의 수정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사회 의 직업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물론 최근 들어 우리 나라 전체 직업에 대한 직업지위를 보여주는 직업위계척도가 발표되기도 하였고(유홍 준·김월화, 2002), 중앙고용정보원 역시 국내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WIC-OES 직업 분류를 개발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간즈봄 등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간즈봄 등의 척도 는 1988년에 개정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에 따라 위세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사용 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기존의 직업지위연구에 따르면 직업지위는 국가 간 사회구조의 차이점이나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척도를 사용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준직업분류 소분류별 간 즘봄 등의 직업위세점수는 박성재(2004)의 부표에 제시되어 있다.

에 따른 위신보상(prestige returns)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Müller, Steinmann & Ell, 1998).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경력의 증가에 따른 승진효과 때문일 것이다. 전공은 전문대와 대졸 모두 교육의학 전공자는 예체능기타 계열에 비해 직업지위가 높으나 인문사회계열이나 이공자 연계열은 모두 직업지위가 낮다. 출신지역은 전문대졸업자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과 모형 3).

모형 1과 모형 3에 추가로 취업한 일자리의 특성을 통제한 결과 근속 개월이 증가할수록 직업지위가 높다. 다만 정규직더미 계수의 경우 학력에 따라 부호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표본의 70%에 이르는 300인 미만 사업장 취업자 중 전문대졸업자는 정규직이, 대졸자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4〉 출신지역별 첫 직장 직업지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문대				대학			
	모형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남성	-2.815	-0.115 ***	-2.546	-0.105 ***	-4.475	-0.152 ***	-3.423	-0.116 ***
연령	0.221	0.037 *	0.184	0.031	1.152	0.132 ***	1.145	0.131 ***
부모님직업(화이트칼라)	0.615	0.023	0.633	0.024	1.351	0.042 **	1.401	0.043 **
부모님직업(자영업/기타)	0.546	0.023	0.673	0.028	1.216	0.041 **	1.297	0.044 **
월평균가구소득(로그)	-0.420	-0.016	-0.296	-0.011	0.157	0.005	0.402	0.013
인문사회계열	-2.637	-0.098 ***	-1.765	-0.066 **	-9.199	-0.301 ***	-8.229	-0.270 ***
자연공학계열	-1.420	-0.060 **	-0.887	-0.038	-3.096	-0.104 ***	-2.162	-0.073 ***
교육의학계열	4.486	0.137 ***	5.307	0.162 ***	4.815	0.102 ***	5.217	0.111 ***
출신지역(서울)	1.740	0.059 ***	0.151	0.005	-0.848	-0.028 *	-0.275	-0.009
출신지역(수도권)	1.705	0.065 ***	-1.738	-0.074 ***	-0.599	-0.011	-0.710	-0.013
사업장규모(300-999)			-3.781	-0.125 ***			-3.936	-0.111
사업장규모(1000+)			-4.134	-0.107 ***			-4.551	-0.126 ***
정규직			0.827	0.027 **			-1.303	-0.032 ***
근속개월			0.073	0.039 ***			0.054	0.024
상수	45.530	***	45.666	***	27.463	***	26.753	***
R <sup>2</sup>	0.058		0.085		0.101		0.121	
표본수(N)	4,265		4,253		4,313		4,306	

주: 1) 기준범주는 부모님 직업(블루칼라), 전공(예체능기타), 출신지역(수도권), 사업장(300인 미만)임.

2) \* : p<0.1; \*\* : p<0.05; \*\*\* : p<0.01.

사업장규모변수는 사업장규모가 클수록 직업지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업장규모가 낮을수록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하는 ‘직급 프리미엄(position premium)’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sup>12)</sup>.

## 2. 저급직종치중도

기초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지방대 졸업자는 서울지역 및 수도권 출신 졸업자에 비해 정규직 취업비율이 낮고 임금수준도 낮으며 취업사업장 역시 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출신지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대졸업자의 인적자원의 수준이 낮아 체계적으로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때문인지 불분명하다.

앞에서 노동시장 수요를 넘어서는 과잉공급은 하향취업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안렌즈 곡선’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직종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저급직종치중도를 이용해 고학력자의 하향취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sup>13)</sup>. 먼저 ‘안렌즈 곡선’의 개념을 설명하면<sup>14)</sup>, 산업(소분류), 직종(소분류), 그리고 사업체 규모의 3가지 기준을 이용해 일자리를 구분한 후 각 일자리에 속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구한다. 그 다음 평균 임금이 낮은 일자리부터 높은 일자리 순으로 배열한 후,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최저급직종에서 최고급직종까지 각 일자리에 속하는 근로자 비중의 합(근로자 누적비중)을 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안렌즈 곡선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안렌즈 곡선은 각 직종순위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하여, 그 직종순위와 같거나 이보다 낮은 직종순위에 속하

12)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장규모와 종사상지위에 따라 사회적 위신과 임금수준 격차가 크기 때문에 표준직업분류코드상 같은 직업으로 분류될지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3) 하향취업 혹은 직무불일치(job mismatch)여부 측정은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방법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응답자 본인의 교육수준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해당 직무의 교육수준을 비교해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DOT(the 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의 일반교육수준(GED: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자료가 분석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직업사전의 GED를 활용할 수 있다(김기현, 2003). 반면 주관적 방법은 응답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김주섭·이상준, 2000)

14) 안렌즈 곡선에 대한 개념설명은 안주엽(2005)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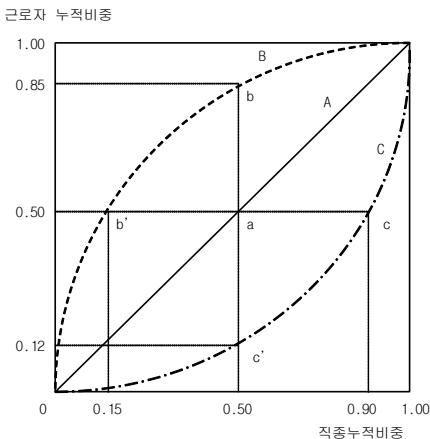
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그림 2]의 안렌즈 곡선을 설명하면, 대각선으로 나타난 안렌즈 곡선 A는 모든 근로자가 각 직종순위에 골고루 분포되어 직종분포가 고른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안렌즈 곡선 B는 이 사회의 중위직종(직종 누적비중이 0.50) 또는 그보다 직종순위가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이 85%(점 b)에 이르며, 또한 이 집단에 속하는 근로자의 50%는 전체 직종순위 중 직종순위가 15%(점 b')이 하인 낮은 일자리에 종사함을 의미한다. 안렌즈 곡선 B는 상대적으로 저급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많음을, 안렌즈 곡선 C는 상대적으로 고급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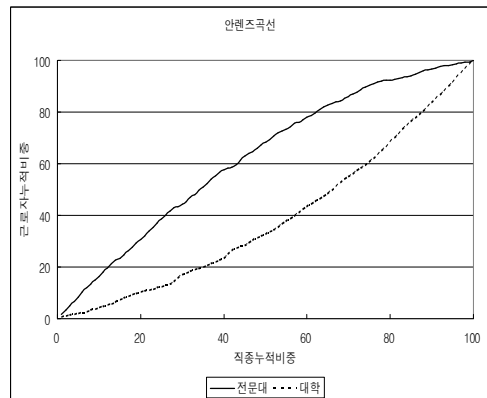
다음으로 저급직종치중도란 안렌즈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로 정의된다. 모든 직종에 근로자가 고루 분포된 경우에 안렌즈 곡선은 대각선이 되기 때문에 저급직종치중도는 0.5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급직종에 종사하는 집단의 안렌즈 곡선은 대각선의 우측에 위치하고 저급직종치중도는 0과 0.5 사이값을 가질 것이다.

위 개념을 이용해 졸업자조사 표본의 안렌즈 곡선을 그려보면 위의 [그림 3]~[그림 5]와 같다. 안렌즈 곡선을 보면 예상대로 전문대졸업자는 대졸자에 비해 저급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훨씬 높으며, 동일한 교육수준일지라도 출신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전문대와 대졸자 모두 지방대 출신자는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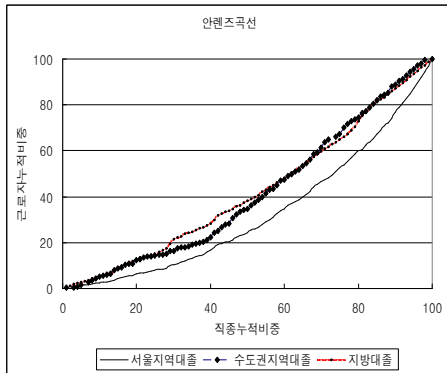
[그림 2] 안렌즈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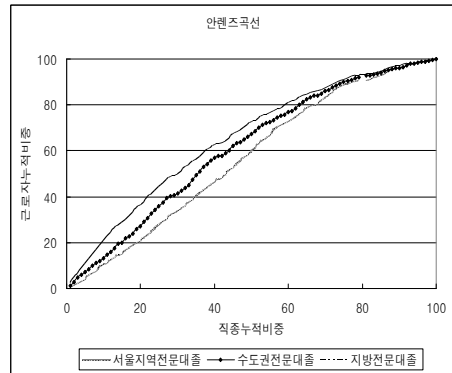
[그림 3] 전문대와 대졸자의 안렌즈 곡선



(그림 4) 대졸자의 안렌즈 곡선



(그림 5) 전문대졸업자의 안렌즈 곡선



지역 출신자에 비해 첫 직장이 저급직종인 비율이 높다<sup>15)</sup>.

저급직종치중도 개념을 이용한 교육수준별 그리고 지역별 추정치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는 저급직종치중도가 0.685에 이르지만, 대졸자는 0.328에 그쳐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급직종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교육수준이더라도 출신지역에 따라 저급직종치중도가 상이하다. 서울지역 출신 대졸자의 저급직종치중도는 0.242에 불과하지만 지방대 출신자는 0.384로 지방대 졸업자가 저급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 1.6배 많다. 특히 서울과 지방대 졸업자간 저급직종치중도 격차는 전문대 졸업자(0.125)에 비해 대졸자(0.142)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방대 졸업생들의 하향취업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표 15 참조).

〈표 15〉 교육수준별 지역별 저급직종치중도

	전문대				대졸			
	전체	서울	수도권	지방	전체	서울	수도권	지방
저급직종치중도	0.685	0.599	0.673	0.724	0.328	0.242	0.345	0.384

15) 임금이 일자리의 질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지표이긴 하지만, 단순히 직종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저급직종’ 혹은 ‘고급직종’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3. 임금효과

임금수준은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첫 번째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후 출신대학 소재지별 차이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월평균임금 자연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천체모형 분석결과를 보면 출신대학 소재지는 첫 직장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 출신자는 지방대학 출신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신지역별로 임금격차가 존재

〈표 16〉 지방대 졸업이 첫 번째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

	전체		전문대 모형		일반대 모형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남성	0.144	0.191 ***	0.159	0.233 ***	0.124	0.180 ***
연령	0.029	0.167 ***	0.030	0.183 ***	0.031	0.153 ***
부모님직업(화이트칼라)	0.020	0.024 **	0.022	0.029 *	0.019	0.026
부모님직업(자영업 및 기타)	0.028	0.037 ***	0.023	0.035 **	0.035	0.050 ***
월평균가구소득(로그)	0.102	0.129 ***	0.097	0.134 ***	0.106	0.152 ***
대졸더미	0.192	0.257 ***				
인문사회계열	0.113	0.140 ***	0.109	0.144 ***	0.121	0.169 ***
자연공학계열	0.086	0.115 ***	0.068	0.103 ***	0.102	0.147 ***
교육의학계열	0.200	0.179 ***	0.138	0.150 ***	0.276	0.249 ***
최종학교 출신지역(서울)	0.097	0.116 ***	0.094	0.114 ***	0.102	0.142 ***
최종학교 출신지역(수도권)	0.032	0.033 ***	0.036	0.050 ***	0.022	0.018
사업장규모(300-999)	0.125	0.134 ***	0.154	0.182 ***	0.102	0.122 ***
사업장규모(1000+)	0.213	0.207 ***	0.244	0.227 ***	0.189	0.222 ***
정규직	0.164	0.165 ***	0.137	0.162 ***	0.210	0.221 ***
근속개월	0.002	0.043 ***	0.002	0.032 **	0.003	0.058 ***
상수	2.950	***	3.003	***	3.018	***
$R^2$	0.439		0.282		0.347	
표본수(N)	8,601		4,256		4,345	

주: 1) 기준범주는 부모님 직업(블루칼라), 전공(예체능기타), 출신지역(수도권), 사업장(300인 미만)임.

2) \* :  $p < 0.1$ ; \*\* :  $p < 0.05$ ; \*\*\* :  $p < 0.01$ .

하고 있다. 이어서 전문대졸업자와 일반 4년제대학 졸업자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문대졸업자 역시 지방 전문대 출신자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대졸자의 경우에는 지방대 졸업자와 수도권 소재 대졸자간 임금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기초통계에서 확인하였듯이, 대졸자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대 졸업자간에 취업사업장 규모와 임금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개인의 인적특성(성, 연령, 학력) 뿐 아니라 가족배경(부모님의 직업 및 월평균가구소득), 그리고 대학 전공도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7〉 현재 취업사업장의 위치가 현 직장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

	전체모형				전문대 모형		일반대 모형	
	모형 1		모형 2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남성	0.148	0.204 ***	0.153	0.210 ***	0.183	0.275 ***	0.119	0.175 ***
연령	0.033	0.192 ***	0.032	0.186 ***	0.032	0.199 ***	0.033	0.167 ***
부모님직업(화이트칼라)	0.012	0.015	0.011	0.013	0.018	0.024	-0.002	-0.003
부모님직업(자영업 및 기타)	0.026	0.036 ***	0.025	0.034 ***	0.035	0.054 ***	0.012	0.018
월평균가구소득(로그)	0.121	0.156 ***	0.120	0.155 ***	0.122	0.168 ***	0.117	0.171 ***
대졸더미	0.162	0.224 ***	0.159	0.219 ***				
인문사회계열	0.080	0.102 ***	0.082	0.105 ***	0.078	0.106 ***	0.096	0.137 ***
자연공학계열	0.063	0.087 ***	0.068	0.094 ***	0.044	0.069 **	0.091	0.135 ***
교육의학계열	0.173	0.163 ***	0.183	0.172 ***	0.128	0.145 ***	0.254	0.235 ***
최종학교 출신지역(서울)	0.074	0.093 ***	0.044	0.055 ***	0.011	0.014	0.064	0.092 ***
최종학교 출신지역(수도권)	0.019	0.020 **	0.001	0.002	-0.001	-0.001	0.015	0.013
사업장규모(300-999)	0.111	0.092 ***	0.109	0.091 ***	0.143	0.125 ***	0.091	0.086 ***
사업장규모(1000+)	0.167	0.175 ***	0.170	0.178 ***	0.197	0.203 ***	0.149	0.183 ***
정규직	0.202	0.149 ***	0.202	0.149 ***	0.169	0.144 ***	0.253	0.195 ***
근속개월	0.005	0.119 ***	0.005	0.120 ***	0.005	0.125 ***	0.006	0.136 ***
현 사업장지역(서울)			0.057	0.076 ***	0.080	0.115 ***	0.048	0.071 ***
현 사업장지역(수도권)			0.012	0.013	0.016	0.020	0.013	0.015
상수	2.702	***	2.716	***	2.718	***	2.796	***
R <sup>2</sup>	0.435		0.438		0.323		0.340	
표본수(N)	7,348		7,348		3,583		3,765	

주: 1) 기준범주는 부모님 직업(블루칼라), 전공(예체능기타), 출신지역(수도권), 사업장(300인 미만), 현사업장 지역(지방)임.

2) \* : p<0.1; \*\* : p<0.05; \*\*\* : p<0.01.

첫 번째 일자리의 경우 지방대 졸업자들의 임금이 서울지역 출신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취업사업장의 특성에서 연유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현재 취업사업장의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모형을 보면, 첫 직장 임금수준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적특성과 가족배경, 대학 전공이 현 직장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취업한 사업장의 특성 역시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종학교 출신지역을 보면, 첫 직장 임금수준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서울지역과 수도권지역 출신자가 지방대 출신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았다(모형 1).

여기에 취업한 사업장의 위치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하여 취업사업장 지역을 추가로 통제한 결과 서울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사업장 지역을 통제하자 수도권출신 대졸자 임금수준이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다. 수도권출신자 역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서울지역의 좋은 일자리에의 취업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서 전문대와 일반대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졸업자는 출신지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대졸자는 서울지역 출신자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졸자의 경우에만 최종학교 출신지역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표 18>은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고교 출신지역과 최종학교 출신지역을 함께 통제한 결과 고교출신지역은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최종학교 출신지역은 여전히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업장의 특성으로부터 영향 받음을 의미한다. 출신지역이 차별로 이어지는가는 취업효과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취업자에게 있어 출신지역이 차별로 이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8〉 고교출신지역이 현 직장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

	전체모형		전문대 모형		일반대 모형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남성	0.142	0.196 ***	0.177	0.265 ***	0.104	0.153 ***
연령	0.034	0.198 ***	0.033	0.200 ***	0.038	0.189 ***
부모님직업(화이트칼라)	0.016	0.019 *	0.020	0.028	0.006	0.008
부모님직업(자영업 및 기타)	0.029	0.040 ***	0.040	0.061 ***	0.017	0.024
월평균가구소득(로그)	0.119	0.153 ***	0.120	0.164 ***	0.117	0.169 ***
대출더미	0.158	0.218 ***				
인문사회계열	0.080	0.102 ***	0.075	0.101 ***	0.093	0.133 ***
자연공학계열	0.063	0.087 ***	0.037	0.057 **	0.088	0.130 ***
교육의학계열	0.167	0.156 ***	0.114	0.128 ***	0.238	0.219 ***
최종학교 출신지역(서울)	0.085	0.106 ***	0.075	0.094 ***	0.097	0.140 ***
최종학교 출신지역(수도권)	0.027	0.029 ***	0.036	0.050 **	0.014	0.012
사업장규모(300-999)	0.112	0.093 ***	0.144	0.126 ***	0.093	0.087 ***
사업장규모(1000+)	0.169	0.178 ***	0.201	0.207 ***	0.147	0.181 ***
정규직	0.203	0.149 ***	0.166	0.139 ***	0.261	0.201 ***
근속개월	0.005	0.119 ***	0.005	0.124 ***	0.006	0.135 ***
고교 서울출신	-0.004	-0.005	0.006	0.007	-0.007	-0.010
고교 수도권출신	-0.008	-0.009	-0.021	-0.026	0.004	0.005
상수	2.788	***	2.841	***	2.799	***
$R^2$	0.433		0.315		0.339	
표본수(N)	7,143		3,529		3,614	

주: 1) 기준범주는 부모님 직업(블루칼라), 전공(예체능기타), 출신지역(수도권), 사업장(300인 미만), 고교 출신지역(지방)임.

2) \* :  $p < 0.1$ ; \*\* :  $p < 0.05$ ; \*\*\* :  $p < 0.01$ .

## V. 결론

이 절에서는 먼저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대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첫 번째 일자리의 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방대 졸업자의 첫 번째 일자리의 질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출신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졸업자일수록 취업사업장의 규모

가 작고 본인의 학력과 적성과 맞지 않는 일자리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저급직종치중도를 보면 지방대졸업자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 지방대졸업자의 하향취업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임금수준 역시 최종학교 출신지역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출신지역별 격차가 어떤 요인에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취업사업장의 위치 및 출신지역(고교 출신지역)을 통제한 결과 고교 출신지역은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취업한 자에게 있어서는 출신지역이 임금차별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취업사업장의 위치는 서울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임금수준은 취업사업장의 특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면, 임금수준은 취업한 사업장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방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제공된다면 그만큼 지방대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개선될 것이다. 물론 단순히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다고 곧장 지방대생의 노동시장 성과가 개선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행히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한국전력,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176개 공공기관이 12개 광역 시도에 분산·배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된다면 지방의 고급인력이 출신 지역의 대학에 진학해 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현재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는 노동시장 수요를 넘어서는 고학력자 과잉공급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학설립자유화정책에 따른 입학정원 확대는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입학정원 확대가 지방대의 평가하락으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이제는 출산률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부족으로 많은 지방대에서 미충원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학자원부족은 지방대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지방대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수요공급을 감안한 정원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제 대학교육의 목적은 엘리트양성에서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입학자원의 감소로 대학의 생존전략으로서 인력양성 수준, 대상 및 분야별 특성화가 필요해졌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장 적응력 있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두뇌한국 21(BK21)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수도권 특성화사업, 전문대 특성화사업 등 다양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누리사업(NURI) 1차년도 연차평가결과 사업단 7곳이 퇴출되고, 61곳의 지원금이 삭감되는 등 누리사업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매일경제, 2005. 8. 16). 정부의 지방대 특성화정책이 실패할 경우 지방대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 수 있음을 고려해, 정부는 대학이 경쟁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해 지방대가 지역혁신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자료의 한계로 지방대졸업생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시장 성과가 학벌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지방대 차별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후 자료가 구축된다면 임금격차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자리 초기 단계의 출신지역별 격차가 이후의 노동이동 과정을 거치면서 항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도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사상 최초 감축」 보도자료, (2004).
- 교육인적자원부. 「2006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정원 책정기준 및 조정계획(안)」, (2005)
- 김기현. 「하향취업실태 및 과잉교육 노동자의 특성」. KLIPS Research Brief No. 3, 한국노동연구원, (2003).
- 김성환·최바울.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성과분석」. 『제2회 산업·직업별

-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2003).
- 김주섭 · 이상준. 『학력과잉과 노동시장 불균형 실태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 류장수.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수도권 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 6권 1호, (2003).
- \_\_\_\_\_.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이병희 · 김주섭 · 안주엽 외,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 박우성 · 노용진. 『경제위기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1).
- 박성재. 「청년층의 취업준비능력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친 영향」,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 방하남 · 김기현.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별 불평등의 분석」. 방하남 편, 『한국의 직업이동과 계층이동: 노동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백성준 · 류장수.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박세일 · 이주호 · 우친식 편,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제2단계의 개혁』.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 설 훈. 「무분별한 정원 증원으로 지방대 위기 자초」 보도자료. 설훈의원실, (2003).
- 안주엽 · 전병유 · 이병희 『학교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안주엽. 「고학력화와 임금소득 불평등」. 이병희 · 김주섭 · 안주엽 외,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안주엽 외. 「한국 노동시장에서 지역성」. 『사회통합과 지역경쟁력을 위한 지역 고용 · 능력개발 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OECD, (2005).
- 어수봉. 「우리나라의 일궁합 실태와 노동이동(I): 교육수준 측면의 일궁합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17권 2호, (1994).
- 유홍준 · 김월화. 「한국사회의 직업지위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5권 2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 이병희.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 경력형성」.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연구』.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1).
- \_\_\_\_\_. 「청년층의 직업세계 정착과정과 경력형성」.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이병희.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장미혜.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집 4호, (2002).
- 전병유·이상일.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고용·실업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정인수·김기민.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차중천. 「직업구조와 분배의 불평등」. 석현호 편,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 (1997).
- 최강식·정진호. 「대졸 청년층의 증가와 교육투자 수익연구」. 이병희·김주섭·안주엽 외,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 한국교육개발원. 「지방대의 현실과 전망」. (2003).
- \_\_\_\_\_. 『200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분석자료집』. (2004).
- \_\_\_\_\_. 「최근 5년간 계열별 경쟁률 및 충원율」. (2005).
- 홍영관·이남철·신범석. 『기업의 직원채용 및 승진 등에 학벌이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2).

Blau, P. and O. D. Duncan.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1967).

Ganzeboom, Harry B. G., De Graaf, P. M. and Treiman, Donald J. 1989. "A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s." Revised version of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Müller and Yossi Shavit. "The Institutional Embeddedness of the Stratification Process." in edited by Shavit, Y. and Walter Müller. 1998. *From School to Work: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al Destin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8).

\_\_\_\_\_, Steinmann, and Ell. "Education and Labor-Market Entry in Germany." *From School to Work*. Clarendon Press, (1998).

OECD. *Thematic Review of The Transition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Background Reports and Country Notes*, (1998).

\_\_\_\_\_. *Preparing Youth for the 21st Century*, (1999).



- \_\_\_\_\_.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3).
- Ryan, Paul.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 (2001).
- Shavit, Yossi and Walter Müller. *From School to Work*. Clarendon Press, (1998).
- Treiman, D. J.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Stratification." edited by Laumann, E. Indianapolis. *Social Mobil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Bobbs-Merrill, (1970).
- Treiman, D. J. and Ganzeboom, Harry B. G. "Cross-National Comparative Status-Attainment Research."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9, (1990).

**School-to-Work Transition and Labor Market  
Performances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focusing on their first job in life**

Sung-jae Park

When suggesting diverse policies dealing with youth unemployment, it is worthwhile looking at local university graduates' transition from school to labor market.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local university graduates' labor market transition and performances. Its results based on first job in life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showed that the quality of their first job was lower than that of university graduates from Seoul or metropolitan areas. Also local university graduates tended to find their first jobs incommensurate with their education levels or work aptitudes and to start working at relatively small sized work places. In other words, they tended to find jobs of lower quality and lower wages. The study found that there exist wage gap by region where graduated schools are located. In order to study causes of wage gap, the study controlled the location of work places to only find work places in Seoul pay higher wages. This means that the wage level of university graduates is influenced by not only demo-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such as gender and education level, but also by characteristics of workplace such as its location.

As wage level is affected by workplace characteristics, we need to strengthe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order to provide local university graduates with decent job opportunities in their graduated regions. We also need to consider seriously the fact that

today's local universities crisis are due to oversupply to labor market demand, in other words, producing too many highly educated workers. To solve the problem, we will need to make appropriate school recruitment policies considering labor market demand and supply and also to provide diverse policies to promote specialization of local universities and in turn to make them centers of local innovation clusters.

Keywords: school-to-work transition, work position, low-paid work, wage level